

# 傳 蔚山 出土 太和十三年(489年)銘 石造佛像

李 正 曉\*

## 目 次

I. 머리말	ii) 樣式
II. 時代 概觀	IV. 맺는말
III. 考察	
i) 銘文	

## I. 머리말

東亞大學校 博物館에는 1960년부터 所藏되어 온 紀年銘 石造佛像이 있다. 銘文에 대해서는 일찌기 中吉 功氏가 新羅·高麗佛像의 紀年銘을 輯錄했던 附錄篇에 그 內容이 紹介된 바가 있다.<sup>1)</sup> 國內에서는 比較例가 없었고 銘文을 參照하여 統一新羅時代 佛像으로 紹介하여 지금도 그대로 追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佛像을 注目하게 된 것은 筆者가 日本 榎原考古學研究所에 研修途中 같은 時期의 佛像資料들을 蒐集·檢討하는 過程에서 樣式的 關係를 相互 比較할 수 있는 類似 자료를 發見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이 佛像은 北魏末 太和期의 紀年

이 論文은 財團法人 東아시아 文物硏究學術財團 1996年度 研究支援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東亞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1) 中吉 功, 『新羅·高麗의 佛像』, 玄社, 1971·1973(增訂版), p.125에서 銘文만을 紹介하고 있는데 當時는 太和十三年으로 읽어 統一新羅로 推定하고 있다. 紹介된 銘文은 다음과 같다.

卽卽緣卽昔衆世卽古除卽日己卽  
 卽文少結惡生父卽卽成卽庚巳卽  
 卽卽佛地途咸母卽心凡功申九夫  
 卽佛卽卽二同卽卽卽己德卽卽和  
 卽像卽卽卽卽卽功惡卽卽卽卽卽  
 寶一卽感之二卽德北卽寶卽卽卽  
 出卽卽慕願卽卽逮不成卽卽同年  
 入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  
 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卽

佛像으로서 佛教 彫刻史研究에 있어서 重要な 作品임을 알게 되었다.

## II. 時代 概觀

現存 國內 最古의 佛像은 羸島出土 金銅佛 坐像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中國의 北魏 佛像과의 樣式 比較에서 대체로 5世紀 前半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紀年佛像으로서 가장 古式으로 알려진 確實한 例는 延嘉七年己未(539年) 銘 金銅佛 立像이다.<sup>2)</sup>(圖 1.) 이 佛像 年號는 高句麗로 알려져 있으나 出土地가 慶南 宜寧이어서 多少 解析上 異論이 提起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比較的 이른 時期에 該當되는 佛像은 대부분 6世紀代의 小形 金銅佛인데 그 중에서도 紀年 佛像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 時期의 佛像研究 또한 資料 不足으로 상당히 進展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그런 意味에서 이 佛像은 國內에서 年代가 가장 이른 紀年銘 石佛像이어서 그 獨步의인 價値가 認定된다고 하겠다.

이 佛像의 歷史의 位置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中國 佛教彫刻史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sup>3)</sup>

紀元前 5世紀頃 始作된 印度 佛教는 數世紀를 지나 紀元後에 이르러서 간다라(S:Gandhara)와<sup>4)</sup> 마투라(S:Mathurā)의 兩大地域을 중심으로 佛教美術을 誕生시키게 된다. 이러한 佛教美術은 彫刻을 爲主로 당시 最高의 藝術로서 凡國際的인 時代潮流를 타고 各地域으로 전파되었다. 現在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실크로드나 그 밖의 多樣한 루트를 통해 이루어진 交易의 證據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示唆해 주고 있다.

中國의 경우 確實한 紀年의 彫像 資料로서는 4世紀에 들어서야 나타난다.<sup>5)</sup>

傳來된 佛教文化는 漸次 中國化하면서 4世紀 中葉 이후 甘肅 一帶의 敦煌 莫高窟<sup>6)</sup>·永靖 炳靈寺<sup>7)</sup> 等地에서 造營되기 시작한다. 특히 百濟에 크나큰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江南의 南朝(東晉, 劉宋, 梁, 陳) 彫像에 대해서는 現在 仔細히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北魏를 비롯한 江北의 北朝는 大

2) 高17cm, 國立博物館所藏.

永康七年銘(300, 360, 418, 420年?)·建興五年銘(476, 596年?)金銅佛光背 등은 年代의 異說이 있는 前時期의 佛像 例이다.

3) 여기서는 紙面關係上 그 흐름의 大綱을 摘記한다.

4) S: 산스크리트語(以下 同略)

5) 最古의 것은 建武四年(338年)銘金銅佛坐像: 샌프란시스코東洋美術館藏, 高39.7cm (圖2.)

6) 敦煌文物研究所「敦煌莫高窟內容總錄」文物出版社, 1982年.

7) 甘肅省博物館永靖炳靈寺文物保管所「炳靈寺石窟」文物出版社, 1982年.

同의 雲岡(雲崗), 洛陽의 伊闕·龍門 石窟 등의 彫刻史上 큰 脈을 이룬 痕迹들을 남기고 있다.

鮮卑族 拓跋氏는 439年 最後로 北凉을 滅함으로써 五胡十六國의 北方地域을 統·하여 北魏를 建國하고 文化政策으로서 西方의 佛敎를 積極 收入·獎勵하였다. 世祖太武帝代의 廢佛事件에도 불구하고 以後 北魏佛敎는 다시 復興의 刺戟이 되어 文成帝는 高僧 曇曜로 하여금 前代의 五帝를 위해 五大窟(第16~20窟·曇曜五窟)을 造成하였다. 이窟은 五帝를 各各 본떠서 높이 10m以上의 大像이 本尊으로 安置되어, 江北 五胡를 統·한 北魏의 位相을 反映함과 同時에 하나의 獨特한 樣式 單位를 이루게 하고 있다.

獻文帝(466~470年)와 孝文帝(471~499年) 또한 佛敎에 歸依하였는데, 특히 孝文帝는 漢文化로의 改革을 斷行하고 大同에서 洛陽으로 遷都하여 龍門에 石窟을 開鑿하는 業績을 남기었다.

曇曜五窟을 포함하는 雲岡石窟은 和平年(460~466年)初부터 始作하여 王侯 貴族의 權力者에 의해 造成되었는데 洛陽 遷都(494年)期를 前後 變·京退期를 보이고 있다. 이 石窟 中 遺存하는 彫像紀年銘은 意外로 드물다. 따라서 雲岡第 11窟 東壁南上方의 483年(太和 7年), 第17窟 明窓東側壁의 489年(太和 13年)의 銘은 특히 貴重한 것이다.(圖 3.)

龍門石窟은 宣武·孝明 兩帝의 約30年間(499~528年)에 活發히 造營되었다. 北魏의 彫像은 龍門에 이르러 後期 樣式의 集約體를 보여 준다. 그 뒤 6世紀代에 이르러서는 鞏縣·甘肅의 麥積山<sup>8)</sup>石窟 등 中國 彫刻史上 多樣한 樣式을 展開시키고 있다.

北魏는 永熙 三年(534年)에 東西로 갈라져서 各各 北齊(天保元年: 550年), 北周(孝閔帝元年: 557年)를 建國하였다. 河北 曲陽<sup>9)</sup>·定縣 地方을 中心으로 白大理石(白玉)의 彫刻이 盛行했던 東魏의 樣式은 北齊의 樣式으로 이어져 河北 一帶를 中心으로, 西魏·北周는 陝西·甘肅 地方을 中心으로 北魏 後期의 兩大派(山西·陝西)를 繼承하고 있었다.<sup>10)</sup> 이 時期의 彫像은 以後 開皇六年(589年) 南北朝를 再統·한 隋에 의해 7世紀에 들어서면 南北이 交流·融合된 樣式을 이루게

8) 張寶璽「麥積山石窟開鑿年代及現存造像石窟造像壁畫」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 論文集·文物出版社, 1969年.

9) 주로 庶民 系統의 新福을 나타낸 것으로서 民間 石窟의 傑作이 많다. 또한 地方色이 豊富하여 東魏佛의 代表格이 되고 있다.

10) 石工의 技法·習慣·題向·社會的條件 등에 의해서도 여러가지 特色이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甘肅·山西·河南(鞏縣)·四川·雲南에서는 硬度가 낮은 砂岩, 河南洛陽의 龍門·山東(石窟寺)에서는 石灰岩이라고 하는 石材의 分布에 있어서의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된다.

이상과 같은 脈絡 속에서 比較한다면 이 佛像은 時期的으로 太和期(477~499年)라고 하는 中國 佛教彫刻史上 北魏 彫刻의 黃金期에 該當하는 셈이다. 이 太和期의 佛像은 單獨造像의 小像이 盛行하고 金銅佛은 가장 北魏的인 樣式이 成立 展開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單獨造像의 增加는 물론 貴族佛教文化에서 庶民佛教文化로의 擴散 또는 變遷도 關係가 있을 것이 豫상된다.

### Ⅲ. 考 察

#### i) 銘文

□ 迦 緣 (求) 昔 衆 世 □ 古 除 □ (恩) 日 己 大  
 □ 文 少 結 惡 生 父 □ (道) 成 □ □ 庚 巳 代  
 □ 石 佛 地 途 咸 母 □ 心 凡 功 □ 申 九 太  
 □ 佛 □ 獄 □ 同 累 □ □ 己 德 □ □ 月 和  
 三 像 □ □ □ □ (劫) 功 忍 生 三 □ □ □ □ 十  
 寶 一 □ 感 之 □ □ 德 北 □ 寶 □ □ □ □ 三  
 出 區 □ 慕 願 □ □ 逮 不 成 □ □ □ □ 朔 年  
 入 □ □ □ □ □ (无) 及 □ 行 □ □ □ □ 十 歲  
 □ □ □ □ (因) □ 諒 邊 七 □ 御 □ □ □ □ 九 在

銘文은 區劃線을 磨鍊 九字十五行 總 135字가 陰刻된 비교적 長文이다.

筆者에 의해 새로 檢索된 글자는 明確한 것이 九字, 推定한 것이 六字이다. 또 一行을 補充하였다. 이 銘文은 當時의 여러가지 事實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銘文은 雲岡石窟 第17窟의 明窓東側의 太和 13年龕<sup>11)</sup>(圖 4.)의 內容과 많은 部分이 一致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날짜까지도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朔十九日庚申」까지는 완전히 同一한 字句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現在 判讀하기는 어렵지만 「九月」다음 두글자는 「壬寅」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밖에도 「功德逮及七世父母累(劫)」, 「无邊衆生咸同」 또한 同一한 字句이다.

11) 十一行六十八字, 3·4行이 각각 9字가 되었고 銘文은 자리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겨우 반을 조금 넘는 部分에 彫刻되었다. 大體的으로 이 銘文의 年代는 第17窟의 全體를 代表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다만 그 窟의 製作時期와 比較年代로서 認定되고 있다. 比丘尼 慧定은 病患의 回復을 위해 發願하여 釋迦·多寶·彌勒의 三區를 造像하는 內容이다.

「大代」는 「大魏」 등으로 北魏期の 年號 앞에 종종 배치하여 莊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太和」는 魏代(227~232年)에서부터 莫代(929~934年)까지 七回, 新羅(647~650年)에서도 愛用되었던 年號이다. 그 中 13年數가 될 수 있는 唯一한 年代는 北魏 孝文帝代의 太和十三年 己巳로 정확히 西紀489年이다.<sup>12)</sup> 「歲在」는 紀年表記가 比較的 잘 갖추어진 銘文에 있어서 北魏期 또는 그 보다 약간 앞선 時期에 자주 나타난다.<sup>13)</sup>

이 銘文에서 가장 많이 出現하는 單語는 「功德」과 「三寶」이다.<sup>14)</sup> 이 文句는 雲岡石窟 第17窟의 明窓東側 太和13年龕의 銘文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當時의 佛教信仰·受容의 한 側面을 엿볼 수 있다. 中國에서는 5-6 世紀代에 教相判釋<sup>15)</sup>이 행해졌다. 『法華經』은 大乘經典 中 가장 尊重되어지는 經典으로 鳩摩羅什<sup>16)</sup> 譯의 『妙法蓮華經』<sup>17)</sup>이 주로 알려져 있고, 특히 大乘佛

12) 北魏前期에서 하나의 時期를 이루고 있는 太和年間(477~499)에서 現在 13年銘을 가진 紀年像이 尙적으로 가장 많다. 本文에 紹介된 것 外에 太和13年銘 金銅如來坐像(書道博物館藏, 禪定印, 臺座에 現世女體과 生天을 念願하는 銘文71字), 銅造菩薩立像(河北省博物館藏, 背面에 半跏思惟像, 臺座에 銘文圖5·5-1), 金銅佛立像(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圖版編 -, 吉川弘文館, 1995, 圖版77 c, 圖5), 金銅二佛坐像(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圖版編 -, 吉川弘文館, 1995, 圖版79, 圖7), 石造佛立像(메트로폴리탄美術館藏, 太和13年 莫19年銘, 圖8·8-1)이 있다.

13) 大西修也『釋迦文佛資料考』 佛教藝術 187, 毎日新聞社, 1989, pp.63~65에서는 紀年表記의 方式 특히, 「歲在」의 字句에 대해 南朝의 紀年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百濟도 같은 影響下에 있었을 것이 예상되며 北朝나 高句麗 등과는 對照的인 것으로 記述하고 있다. 따라서 建興五年銘金銅光背(忠清北道 中原郡 發見, 韓國國立扶餘博物館藏)-536年 또는 596年 등의 若干의 異說이 있다. 이는 高句麗의 可能性을 指摘하고 있다. 現在 銘文中의 「五部」에 의해서도 高句麗의 五部의 하나로 보는 說이 有力視되고 있다. 하지만, 劉宋代의 元嘉14(437)年銘 金銅佛坐像(日本 永青文庫 所藏, 高20.3cm, 圖9·9-1)의 四脚座의 刻銘에 「元嘉十四年歲在」가 뚜렷이 보이고 있어서, 「歲在」의 存否만으로 該當 國名을 斷, 斷하기는 어렵다.

14) 元嘉14(劉宋437)年銘 金銅佛坐像(永青文庫所藏)의 造像銘文에 「元嘉十四年歲在...三寶共會」가 보이고 있다.

15) 「教相判釋」이란 印度에서 將來한 經典 등을 中國 佛敎學者가 그 價値에 의해 中國의 佛敎世界觀에 立脚하여 配列하려고 한 것이다. 즉, 「敎判」은 「敎相」·「敎詩」라고도 하는데, 大·小乘의 諸經典의 敎相 혹은 敎詩를 分判하고 그 秩序를 解釋하여 佛敎經典의 根本眞理 및 修行의 階梯的인 目標를 確立하려고 한 當時의 經典解釋이다. 가장 먼저 竺道生에 의해 5世紀代에 原初敎判이 創設되었다. 以後 研究가 繼續되어 唐代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佛敎辭典, 岩波書店, 東京, 1989

16) 生沒年 344~413年, 350~409年의 두가지 說이 있다. 南北朝時代 初期의 譯經僧으로 깨달은 바 있어 大乘으로 轉向하게 된다. 이후 符堅 主(357~385年)의 在位時, 383年 龜茲(쿠차)國에 遠征한 呂光은 當時 明星이 높던 鳩摩羅什을 데리고 歸國한다. 이후 그는 精力的으로 經論을 翻譯하고 많은 門弟를 길러 내었는데, 그 數만해도 三千을 넘었다고 한다. 東亞細亞佛敎는 그에 의해 根本틀이 이루어졌다고 評價되고 있다.

17) 8卷28品, 406년에 初結.

敎의 三要素인 ‘佛’·‘法’·‘菩薩’이 強調되어 있다. 즉, ‘宇宙의 統一的眞理(一乘妙法), 久遠의 人格的 生命(久遠釋迦), 現實의 人間的 活動(菩薩行道)’이 法華經의 三大 特色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三寶’이다. 法華經 思想이 濃厚한 造像例가 이 時期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當時의 佛敎思想·信仰 體系를 反映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太和13年銘金銅二佛竝坐像(根津美術館藏 圖 10·10-①)<sup>18)</sup>을 비롯하여 雲岡·龍門石窟의 造像例 등 특히 이 時期에 盛行했던 釋迦多寶二佛竝坐像은 『法華經』‘見寶塔品’<sup>19)</sup>의 內容으로 알려져 있다. 新羅는 眞興王(540~576年) 32年 즉 573년에 阿育王이 보냈다고 전해지는 新羅三寶<sup>20)</sup>의 하나인 皇龍寺丈六三尊을 安置하게 된다.<sup>21)</sup> 551년에 高句麗에서 歸化한 惠亮스님의 主管으로 ‘百高坐法會’와 ‘八關之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는 記錄에서는 法會時 반드시 佛像과 菩薩像, 羅漢像을 모시고 法師는 『仁王般若經』을 講說, 각각 100個씩의 獅子座, 燈, 香, 花로써 三寶를 供養하는 儀式이 있었다고 한다.<sup>22)</sup>

「七世父母」·「地獄」에서 ‘過去七佛’<sup>23)</sup>의 信仰을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뿐더러 「衆生」救濟를 위한 本 石佛像의 本尊인 施無畏印<sup>24)</sup>을 聯想할 수 있다. 判讀 가능한 銘文 內容으로 보아서도 ‘下生’에서 結局 ‘上生’을 願하는 內容으로 이어

18) 總高23.5cm. 四角의 簡單한 卍字座에 前面에는 說法하는 釋迦와 禪定하여 敬德하고 있는 多寶如來의 二佛竝坐像가 半肉彫. 後面에는 右手는 施無畏印·左手는 袈裟를 쥐고 배꼽 앞에 두고 있는 如來와 두 菩薩의 三尊은 薄肉彫이다. 臺座 脚部의 前面에는 中央에 香爐와 左右에 一軀씩의 供養者를 線刻하였다. 後面에는 8行44字의 銘文이 篆刻되어 現在의 河北省 薊城縣 石家市 近處의 九門縣 南鄉村의 寬大生 등 兄弟四人에 의해 亡父母供養을 위해 發願·造像된 것을 알 수 있다.

19) 『法華經』見寶塔品에 의하면, 釋迦牟尼가 說하는 法華經이 眞實인 것을 讚歎하는 佛出한 七寶塔 中の 多寶如來는 釋迦牟尼의 坐座를 憐愛하여 차지하고 말았다고 한다.

20) 『三國遺事』第四塔像 皇龍寺九層塔條. 新羅 三寶는 皇龍寺丈六像, 九層塔, 眞平王 天賜玉帶라고 傳한다.

21) 『三國遺事』第四塔像 皇龍寺丈六條.

22) 中國에서 流行한 이 儀式은 新羅에까지 이르게 된다. 新羅의 百座講會·石塔에 관한 記錄은 眞興王12年代부터 보이기 始作한다. 이 記錄의 大部分이 皇龍寺에서 主管되고 있다.

李基白「皇龍寺とその源流」新羅と日本古代文化, 吉川弘文館, 1981. 參照.

23) ‘過去七佛’이란 古代 印度의 業·輪廻 思想에 따른 時間論에 의해 過去 莊嚴劫의 三佛과 現在 賢劫의 三佛을 말하는 것이다. 즉 釋迦牟尼 以前の 6人의 부처를 包含하는 七佛은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가르침이 남아 있다. 이 ‘過去佛信仰’은 곧 彌勒菩薩의 ‘未來佛信仰’을 생겨나게 했다.

宮坂石勝「密院の成立 過去七佛信仰の發展形態について」佛敎の起原, 山喜房佛書林, 東京, 1971.

24) 『法華經』普門品·施無畏印은 三施(財, 法, 無畏施)의 하나로 衆生을 救濟하는 觀世音菩薩은 곧 施無畏者라고 說하고 있다.

지는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이 銘文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迦文石佛像 一區…」이다. 이것은 5·6世紀代의 銘文에 자주 나타나는 ‘釋迦文佛’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釋迦文佛’이란 여러 銘文의 例에서 ‘世加文佛’, ‘釋加文佛’, ‘釋迦文像’, ‘釋加聞佛’, ‘釋迦文石像’ 등으로 表記되는데,<sup>26)</sup> 現在 ‘釋迦文佛’의 最古資料는 高句麗德興里壁畫古墳이다.<sup>27)</sup>(圖 11·11-①) 부처의 尊名으로서는 가장 먼저 出現하는 것이 釋迦<sup>28)</sup>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中國 南北朝時代의 銘文을 살펴보면 5世紀代와 6世紀의 前半代까지 釋迦文佛의 ‘文’이 插入된 尊名이 주로 보이고 6世紀 前半代를 거치면서 서서히 ‘釋迦’本來의 尊名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29)</sup> 이 時期는 佛教經典·教理史에 있어서 混亂期였을 뿐만 아니라 中國化로 인한 陣痛의 時期였다.<sup>30)</sup> 그 證據의 하나가 ‘釋迦文佛’이다.

## ii) 樣式

\* 像量(單位cm)

殘存總高: 39, 下臺座高: 17.5, 上臺座高: 13

前面最下幅: 45.5, 下臺座幅: 30.5, 上臺座下(上)幅: 17(13.5)

25) 久野美樹『造像背景としての生天・託生西方願望-中國南北朝期を中心として-』『佛教藝術』187, 毎日新聞社 1989. 表1.2에 生天·託生西方에 관한 여러 造像銘을 提示하고 있다. (彌勒下生信仰에 若干 後發하여 彌勒上生信仰이 곧 出現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45. 『法華經』에 根據한 生天을 包含한 託生西方願望의 信仰의 경우 現 山西省의 東平, 河北省, 河南省 北平의 範圍에서 널리 行해졌던 것으로 推測하고 있다.

26) 田村雄發『古代朝鮮佛教』日本佛教, 吉川弘文館, 1980.

大西修也, 註12)前掲書.

앞의 두 글에서는 ‘釋迦文像’에 대하여 彌勒下生經 등의 彌勒關係의 經典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彌勒信仰의 前提를 浮刻시키고 있다.

27) 平安南道 大安市 德興리에 있는 古墳 前室 北壁上部의 天井에 14行 154字의 墨書 墓誌銘. 廣湖王(好太)王의 年號인 「永樂十六年(408年)」, 墓主人 「鏡」은 「釋迦文佛弟子」로 佛教에 歸依한 것을 알 수 있다. 高句麗古墳壁畫, 朝鮮書叢社, 1985. 建興五年銘 金銅光背(忠清北道 中原郡 發見, 韓國國立扶餘博物館藏)의 銘文 中 「釋迦文像」 또한 주목된다.

28) 現在 釋迦牟尼, 釋尊, 釋迦牟尼世尊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元來 Sakya-muni(산스크리트語)의 音借로써 釋迦(Sakya)族 出身의 印度 宗教界의 聖者·賢者에 대한 尊稱(muni)이다.

29) 久野美樹『造像背景としての生天・託生西方願望-中國南北朝期を中心として-』『佛教藝術』187, 毎日新聞社 1989.

釋迦·多寶의 二佛並坐像의 경우 5世紀中葉頃부터 6世紀初葉頃까지 大衆 流行. 彌勒佛은 비교적 이른 時期에 出現하나 主尊으로서는 釋迦·多寶와 함께 流行하여 以後에도 繼續 造成되고 있다.

30) 彌勒關係의 經典뿐만이 아니고 當時의 漢譯化된 經典들에 種種 보이고 있다.

後面最下幅43, 銘文幅(高):45.5(18)

側面最下幅:22

이 石佛은 緻密한 砂岩으로 一佛二菩薩의 獅子座에 博山香爐와 左右對稱의 供養像列의 基本構圖를 가지고 있으며 北魏 太和期의 典型的인 石佛形式이다. 元來는 光背도 一造되었다고 생각되며, 殘存部分에 波狀形 火焰紋을 若干 찾아 볼 수 있다. 下段의 圓潤하게 다듬은 方形區에 銘文이 있고, 上部에 前面과 類似한 線刻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三尊의 形式이며 獅子 代身 蓮葉이라는 臺座 裝飾의 差異가 있다. 各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手印

現在 右手는 完全히 缺失되었지만 施無畏印의 手印 外에는 想像할 수 없다. 左手는 現代의 佛圖像 解釋上 흔히 與願印으로 指稱되는 것인데 손바닥을 밖으로 엄지(大指), 검지(頭指)와 새끼손가락(小指)은 쪽 펴고 中指와 無名指(藥指)를 구부려 옷자락을 쥐고 있는 形態이다. 北魏 後期가 되면 通印-右手 施無畏印-左手 與願印의 複合印이 完成되지만, 以前 段階에서 與願印의 確實한 圖像을 보기는 힘들다. 佛教圖像中 禪定印에 이어 가장 먼저 擡頭되는 것은 施無畏印으로 『法華經』에 說하는 三施(財施, 法施, 無畏施)의 無畏施를 象徵한다.

### 2. 衣褶

南北朝時代의 佛像樣式은 當時 周邊國에까지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고, 특히 그 服制를 中心으로 많이 研究되고 있다.<sup>31)</sup> 北魏의 孝文帝(471~499年)는 胡服을 中華化하는 데 全力하여 佛像樣式上 服制의 一大變革을 招來하였다.<sup>32)</sup>

이 佛像의 服制는 中國化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前代의 通肩 形式을 벗어나고 있으나 通肩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肉體를 드러내지

31) 長廣敏雄「大同石佛藝術論」高樹書院, 1946.

「雲岡石窟における佛像の服制について」『東方學報』15冊第4分, 1947.

楊泓「試論南北朝前期佛教服飾的主要變化」『考古』1963, 第6期

宿白「雲岡石窟分期試論」『考古學報』1978, 第10期

小杉一雄「中國佛教美術史の研究」新橋社, 1980.

吉村裕「南北朝佛像樣式史論」『國華』1066號, 1983.

町田甲「南北朝佛像樣式史論批判」『國華』1102號, 1987.

岡田健·石松日奈子「中國南北朝時代の如來像着衣の研究」上·下, 『美術研究』356-357號

溫玉成「中國石窟與文化藝術」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外 多數

32) 長廣敏雄 氏は 北魏(中國)式 服制는 太和4年頃(480)~太和10年(486)의 服裝改革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記述하고 있다.

않고 足首, 結紐도 表現하지 않았으나 胸元을 깊게 열어 斜線의 僞脚崎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形式은 麥積山 第 133號窟 第 3龕 塑造如來坐像, 景明二年(501)銘 石造四面像(西安市出土 陝西碑林博物館藏)의 二面 등 에서 보이고 있다.<sup>33)</sup>

지그재그·波狀形의 수많은 옷주름은 自然스럽고 柔軟하게 表現되었으며 大衣는 길고 豐盛하여 臺座의 前面을 덮어 裳懸座를 이룬다.<sup>34)</sup> 雲岡의 造像을 살펴보면 이러한 裳懸座는 服制의 中國化 以後 定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供養像도 漢式服制인 冕服<sup>35)</sup>으로 表現되었다.

### 3. 臺座

이 臺座는 基本的으로 佛壇의 一般形式을 갖추고, 近世에는 須彌壇, 宣字座 등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獅子의 造像이 特徵的인데, 當時의 獅子座는 佛徒가 經典을 講說하는 座로서 唯·無二한 것이었다.<sup>36)</sup> 以後 점점 蓮花座가 成立·普遍化되어 對替되게 된다.<sup>37)</sup> 臺座의 中央인 中尊의 臺座 밑에도 獅子가 있는 예는 극히 드물다. 또한 菩薩像의 밑에도 各各 獅子가 있어 總 五頭의 獅子를 볼 수 있는데, 當時 流行했던 獅子座는 兩모서리의 기둥部分에만 獅子를 配置한 것이 一般的이었다. 獅子의 顔面 등을 裝飾的으로 利用한 周像例

33) 5世紀初頭에 定着되기 始作하여 炳靈寺, 敦煌 등의 涼州地域을 中心으로 盛行한, 兩肩을 모두 덮고 있으나 中國化한 偏袒右肩으로 '涼州式偏袒右肩'이라고 指稱하며, 漸次 華北全域으로 擴散되었다고 記述(岡田健·石松日奈子前掲書) 여기에 따르면 이 佛像의 着衣도 涼州式偏袒右肩에 속하게 된다. 通肩·右肩偏袒의 兩說이 있고, 解釋에 있어서도 際說이 있다. (久野健「東亞佛像の偏袒形」古代小金銅佛, 小學館, 1982. 逸見梅榮「佛像の形式」東出版, 1970. 外)

34) 특히 臺座部分·後面의 衣褶에 보이는 圓形狀의 옷주름이나 後面의 側面形의 荷葉裝飾은 龍門蓮花洞 北魏代 左壁과 右壁의 小龕에서 각각 볼 수 있다.

水野清「長廣敏雄 龍門石窟の研究」東方文化研究所研究報告第16冊, 1941.

35) 漢代以來 中國의 傳統服으로서 身分을 나타냄은 勿論이고, 下半身을 덮어 길게 드리워진 것이 特徵的이다.

龍門 古陽洞左壁第二層第一·第二 小龕사이 下段에 各各 題名을 가진 供養者列像은 類似한 例이다. 水野清「長廣敏雄」前掲書.

36) 獅子座는 古來 自度王의 座를 가리키는 말이 佛敎에 採用되어 百獸의 王인 獅子가 釋尊을 保護한다고 하는 臺座形式이었다. 說法하는 尊의 席을 가리키며, 어떤 形式의 座도 부처의 座는 獅子座로 認識되었던 것 같다. 특히 自度傳統의 (方形)王座는 脚部를 獅子로 形成한 것을 獅子座로, 그것을 蓮花로 裝飾한 것을 '蓮花獅子座'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곧 佛敎經典에서 말하는 蓮花獅子座와 相通하는 것으로 보인다. '高座', '無畏座', '法座'라고도 불리는 獅子座는 以後 文殊菩薩專用으로 되었다. 逸見梅榮 佛像의 形式, 東出版, 1970.

37) 또는 '佛座', '寶座', '金剛寶座'라고도 하여 釋尊成道時의 座所를 가리키는 것으로 成立되었다.

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숫적으로나 彫刻手法上 獅子가 돋보이는 것으로 가장 獅子座에 充實한 作品이라 할 수 있겠다.

全體像의 壇과 佛壇의 二段은 가장자리가 返花로써 裝飾되었다. 胡桃形 蓮瓣을 連續하여 蓮瓣 連結紋을 이루고 있다. 雲岡石窟에서 裝飾 荷葉으로 자주 使用된 것으로 아직은 幾何學的인 맛이 있다.

博山爐를 中心으로 香華供養을 하고 있는 左右對稱되게 焚香하는 內側 二軀와 外側 二軀는 蓮峰形의 持物(拂塵: 摩尾?)을 들고 있다. 머리 裝飾과 圓滿形의 얼굴 表情 등으로 보아 비교적 身分이 높은 階層으로 劃分된다.

後面의 線刻은 前面과 거의 類似한 圖案이나 臺座에 獅子를 代身하여 側面形의 荷葉 2枚씩을 裝飾하고 있다.

#### IV. 맺는 말

이 佛像의 出土地는 當時 記錄에 의하여 蔚州郡 三南面 鵲洞里 山岬마을로 되어있으나 '95年度 行政改編에 의해 蔚山市 三北面에 속하게 된 지역이며 釜山市 東大新洞의 朴 允淳 氏로부터 購入한 것으로 되어있다. 隣接한 北北面에는 潤月寺<sup>38)</sup>를 비롯하여 嘉瑟岬寺, 石南寺가, 三南面에는 鶯仙寺, 石水寺, 香林寺 등의 新羅古刹이 있었다고 傳한다.<sup>39)</sup> 鵲洞里는 文殊山 南東에 자리잡고 있는데, 梁山 通度寺<sup>40)</sup>와 密陽 表忠寺가 가깝게 位置하고 있다. 특히 蔚山이라면 太和江이 有名한데, 太和江의 由來를 말하자면 新羅 善德女王5年(A.D.636) 慈藏法師가 中國 山東半島의 太和池邊과 因緣이 되어 歸國할 때 海路로 絲浦에 到着, 太和寺를 짓는 것으로 始作된다고 알려져 있다.

絲浦는 곧 谷浦라 하여,<sup>41)</sup> 現在의 菴基里이고 菴基里는 以前의 鵲洞里와 鵲雉里의 一部라고 比定하기도 한다.<sup>42)</sup>

그런데, 絲浦에는 주목할 만한 傳說이 있다. 眞興王代에 印度 阿育王이 보낸 一佛二菩薩의 模型이 배에 실려 온 것이다. 이것을 모델로 하여 皇龍寺丈六像을 만들어 眞興王14年(553)에 始作되어 17年만에 完成된 皇龍寺에 安置하기에 이른다.<sup>43)</sup> 現在 그 像은 간데가 없고 礎石만이 남아 있다.<sup>44)</sup> 이 記錄에서 最小限

38) 沈奉謙 蔚州潤月寺址 古蹟調査報告書 第十冊,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5.

39) 李有謙 蔚山地名史 蔚山文化院, 1986.

40) 陝川 海印寺, 順天 松廣寺와 함께 韓國 三大寺刹의 하나이다.

41) '絲浦 今蔚州谷浦也' 三國遺事 卷四, 塔像 皇龍寺丈六像條.

42) 李有謙 註38)前掲書.

43) 三國遺事 卷四, 塔像 皇龍寺丈六條.

認定할 수 있는 것은 皇龍寺에는 眞興王代에 - 佛二菩薩像을 어떠한 形式으로든 造像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作者는 當時의 어떤 像을 模本으로 했을까. 그 模本이 될만한 것을 찾는다면, 늦어도 6世紀前半까지의 國內에 現存하는 三尊佛像 中에서 이 佛像은 第一候補가 되는 것이다.

本論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佛像의 銘文은 雲岡石窟 第17窟明窓 東側の 銘文보다 字體가 優秀할 뿐아니라 內容面에서도 凌駕하고 있다. 銘文의 內容에서 가장 擡頭되고 있는 것은 '法華經信仰'이라 할 수 있겠다. 前後 同時期の 造像銘文 中에서도 이처럼 多樣하고 豊富한 內容을 가진 것은 드물다. 따라서 相當한 佛教에 대한 造詣가 있었던 發願者였음을 斟酌할 수 있다.

現時點에서 이 佛像의 國內 流入時期를 斷定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問題이다. 만약 當時에 이 佛像이 新羅의 땅에 전해졌다고 假定한다면, 그 文化的 衝擊은 대단히 컸을 것이다. 佛教 圖像은 勿論이고 中國本土에서 研究·集成되고 있던 佛教經典에 대한 理解가 要求되었을 것이며 佛教受容에 한층 더 拍車를 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佛像은 앞으로 金石文 研究는 물론, 國內의 5·6世紀代 그리고 中國 南北朝時期의 佛教信仰이나 石窟·佛像 年代와 樣式 糾明에 있어서 重要な 資料로써 活用될 것이 期待된다.

---

『三國史記』卷四,新羅本紀 眞興王十四年二月條  
44) 仔細한 것은 『皇龍寺』文化財管理局,1984. 參照



圖 1. 延嘉七年己未(539年)銘 金銅佛立像



圖 2. 建武四年(338年)銘金銅佛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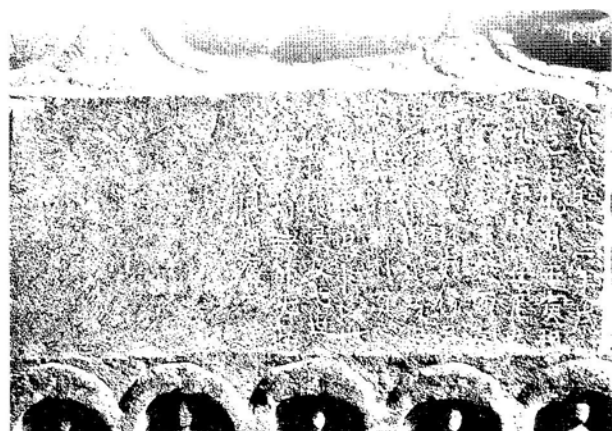


圖 4. 雲岡第17窟 明窓東側壁 太和13年龕 銘文

圖 3. 雲岡第17窟 明窓東側壁



圖 5. 河北省博物館藏 銅造菩薩立像 正面



圖 5 ① 背面



圖 6. 金銅佛立像(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 ; 吉川弘文館, 1995, 圖版77 c)



圖 7. 金銅二佛並坐像(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 ; 吉川弘文館, 1995, 圖版79)



圖 8-①. 背面部分

圖 8. 石造佛立像(메트로폴리탄美術館藏, 太和13年 및 19年銘)



圖 9. 元嘉14(437)年銘 金銅佛坐像



圖 9-①. 側面



圖 10. 太和13年銘金銅二佛並坐像(根津美術館藏)



圖 10-①. 背面



圖 11. 高句麗德興里壁畫古墳 前室北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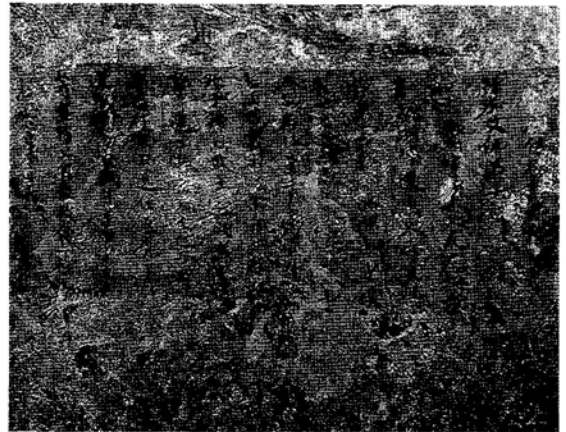


圖 11-①. 墓誌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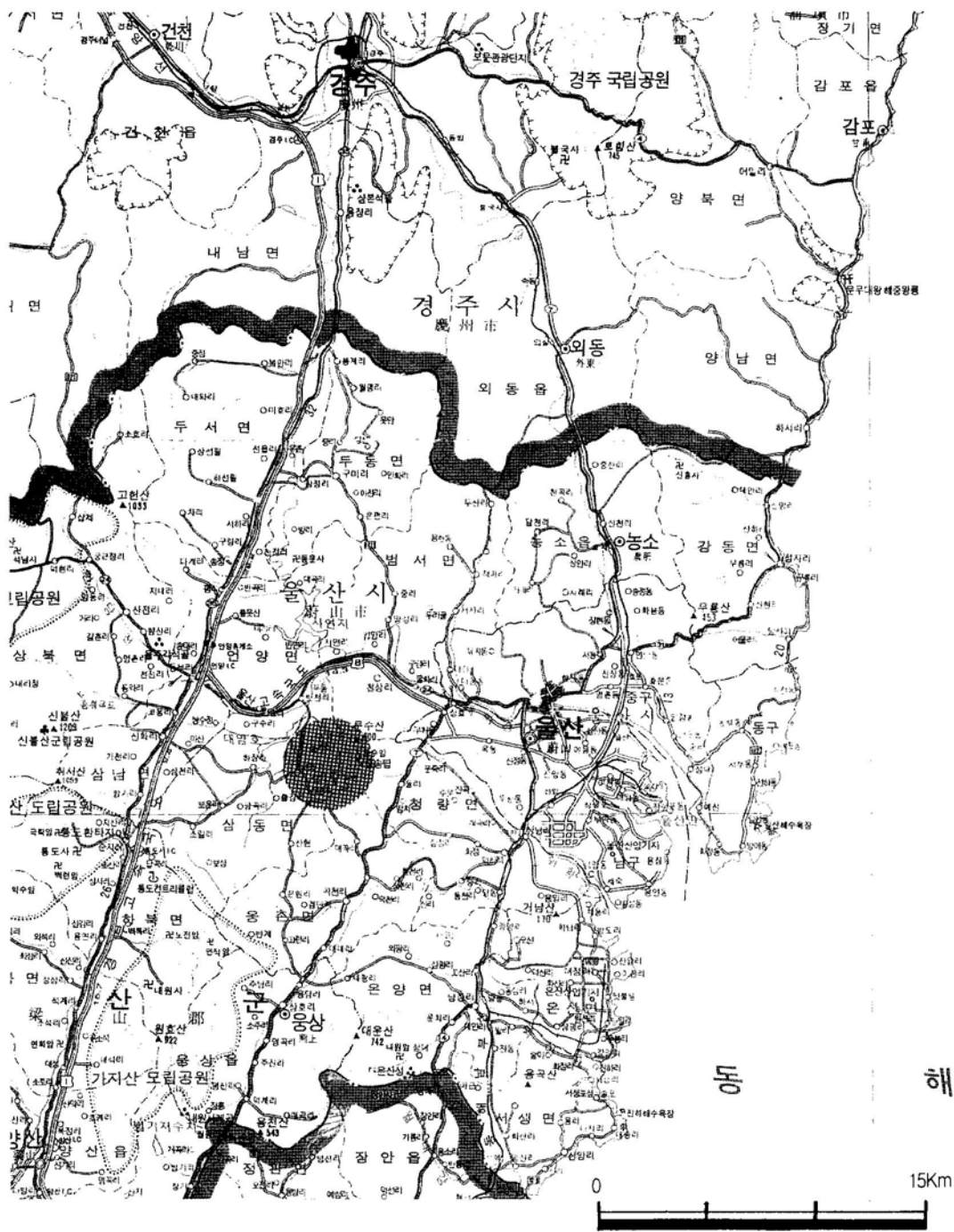


圖 12. 出土地 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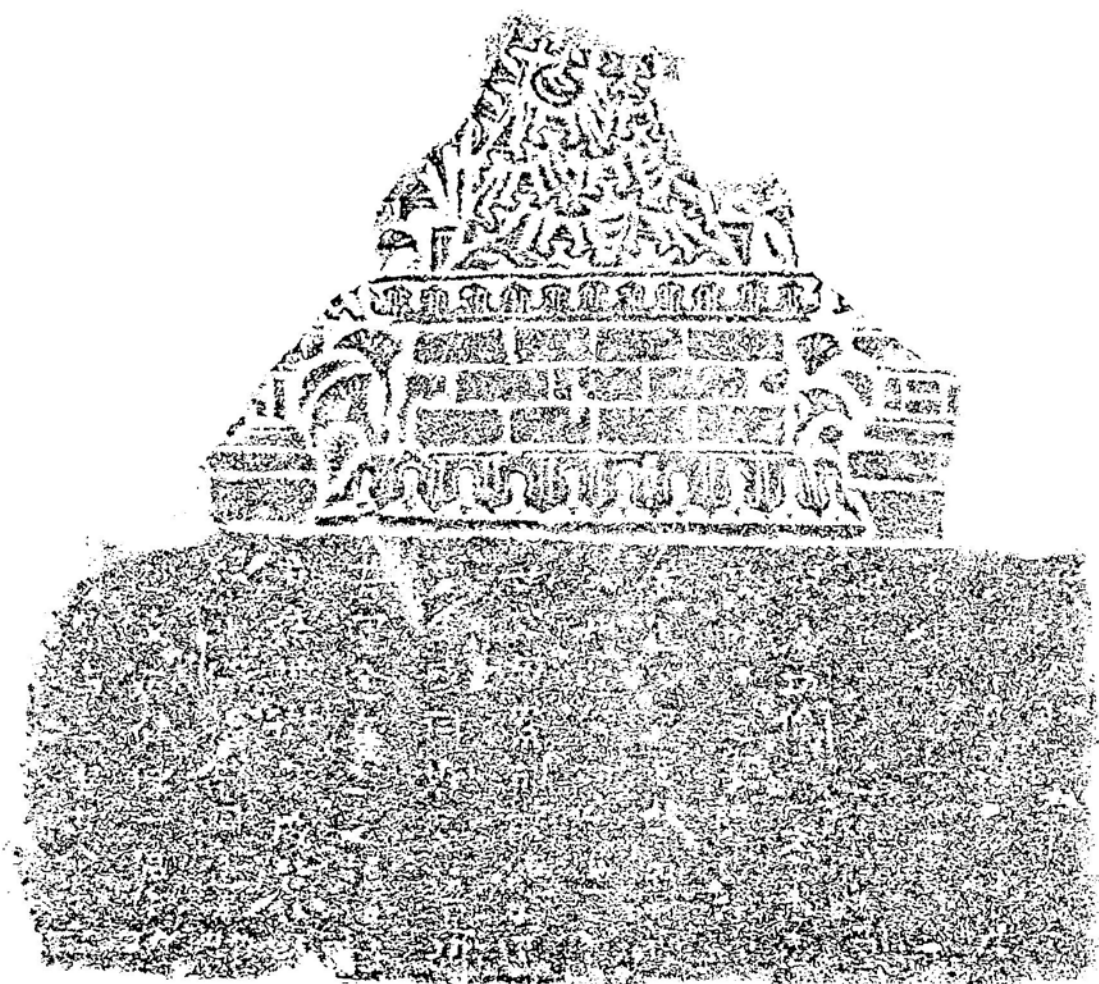


圖 13. 背面拓本



圖 14. 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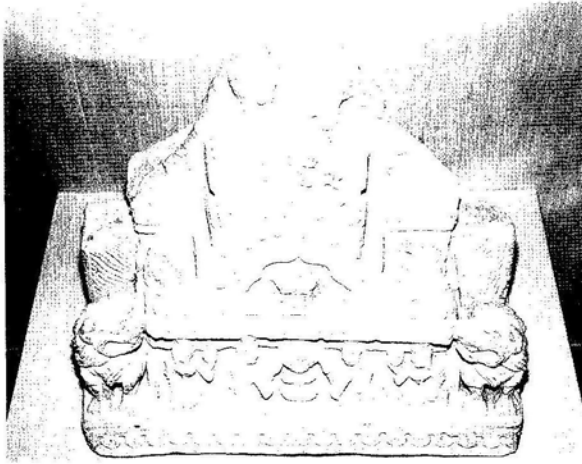


圖 15. 正面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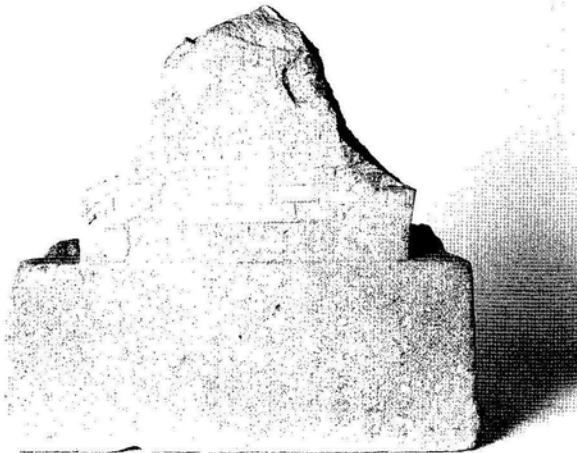


圖 16. 背面



圖 17. 正面細部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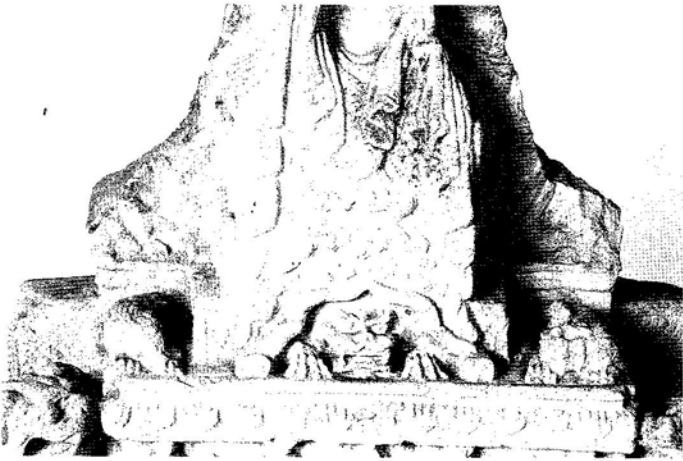


圖 18. 正面細部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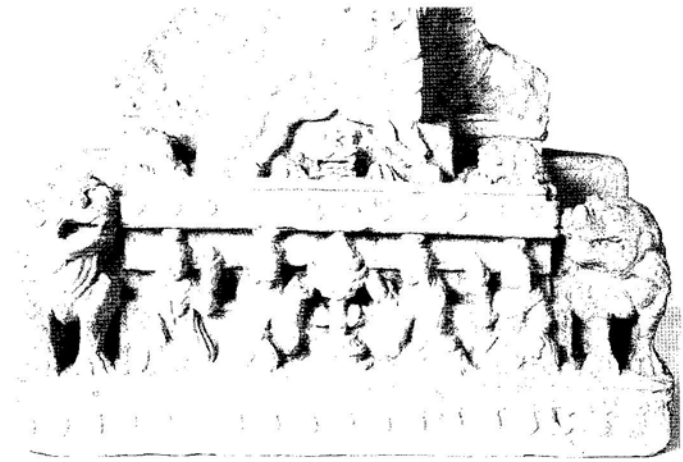


圖 19. 正面細部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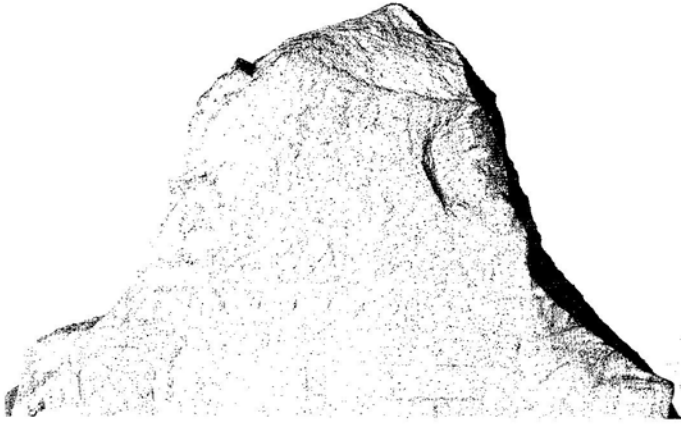


圖 20. 背面細部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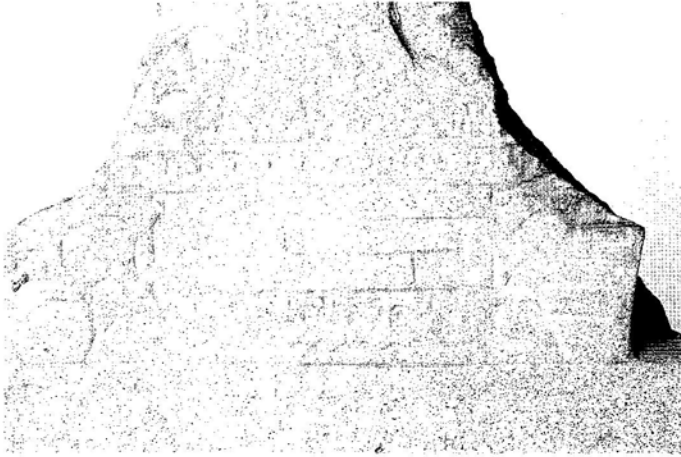


圖 21. 背面細部 中



圖 22. 背面細部 下

圖 23. 左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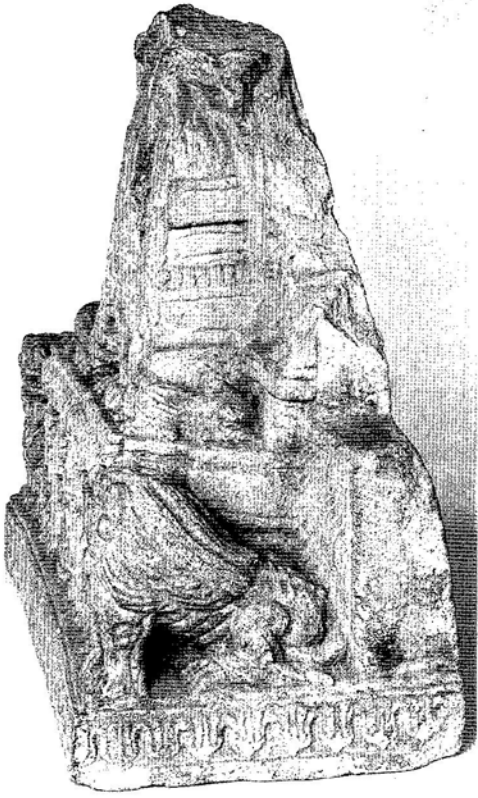


圖 24. 右側面

